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조진근

제3회 전국목회자세미나
‘성경적 영성과 복음의 능력’
해리스 박사와 칠더스 목사 내한
2월 21-23일 거행

제3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거행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목회사역의 복음 중심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이루도록 섬기는 이 세미나는 지난 1, 2회 동안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이번 제3회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된 교수들은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거나 목회현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역하는 아들로서 자신들의 학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에 초빙되는 강사 중 알렌 해리스는 미국 컬럼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이며 웨스트민스터신학원 강사로서 목회자와 장로 간의 아름다운 동역을 지도자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할 예정이다.

스티브 칠더스는 미국 리플트신학원의 교수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개척사역’과 ‘복음의 변혁시키는 능력’을 강의하는 명강사로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복음의 변혁시키는 능력’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훈련원에서는 성도들이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도 기도로 지원하며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00년도 전반기 장학생

2월 12일(토) 9시, 논술·면접시험
2월 18-19일, 기도원에서 선교훈련

전반기 소석장학생 신청이 지난 주일로 마감됐다. 2000년도 전반기 장학생 신청에는 대학생 이상 148명, 고등학생 48명, 중학생 14명, 예바다부 45명 등 총 285명이 신청했다.

대학 이상 학생생 후보자들은 2월 12일(토) 오전 9시부터 교육관 507호에서 논술시험을, 이어서 교육관 307호실에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편 장학생 후보자 중 대학생 이상이 참가하는 선교훈련은 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중고등부는 2월 20일(주일) 오후 4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하게 된다. 예바다부는 별도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대학부 겨울순회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
2월 8-10일, 충현기도원에서

대학부 겨울순회회가 2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모인다.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는 주제로 모이는 대학부 겨울순회회의 강사는 대학부 지도 김동하 목사와 김일승, 허용구 전도사이다.

2월 기도원 담당 / 겸임목사
기도원 전화 / 0347-765-5472
기도원 버스 (교회에서 기도원으로)

매일 오전 10시

오후 7시(수요일은 수요일2부예배 후,

금요일은 금요일예배 후)

토요일은 없음

2000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3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전원인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론 (이승학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론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20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인식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론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단기선교, 우리도 갑니다”
방글라데시팀 파송, 2월8-22일

단기선교 방글라데시팀(단장 전홍철 장로, 지도 차병준 목사 등 9명)의 대원이 2월 8일 출국한다. 22일까지 진행될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은 대학캠퍼스 전도사역과 귀국 근로자 가정 심방, 양육 사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팀은 단기선교를 위해 꾸준히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여 왔다. 성도들은 이들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야 하겠다.

1교구 전국전치 (지역연합 모임)
2월 10일, 만나홀에서

1교구에서는 연초 지역 모임을 연합으로 모여 전국 식구를 초청하여 교구 전치로 모인다.

2월 10일(목) 오후 6시부터 만나홀에서 시작되는 지역 연합 모임에는 식사 및 전교회와 예배, 교구일꾼 소개 및 새가족 환영, 지역별 전도회별 찬양 등 장기자랑을 갖고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로 마쳐질 예정이다.

1교구에 소속된 성도 및 세신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정전도회

춘천소년원 차량봉사자 구해

교정전도회에서는 춘천소년원 사역자를 위한 차량 봉사자를 찾고 있다. 교정전도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춘천소년원을 찾아 전도활동을 하는데 차량운전자 없이 담당자들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다닐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봉사할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12인승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면 된다. 봉사에 대한 문의는 교정전도회(전화 552-8200 구내 207번)로 하거나 교정전도회 회장 황의만 장로에게 하면 된다.

고 이승철 장로 주님 품으로



고 이승철장로가 지난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다. 영결예배는 지난3일 장남 성모병원에서 거행되었습다. 고 이장로는 96년 11월 제29대 장로에 장립되어 기회위원으로 봉사에 오셨습다. 고 이장로는 생전에 시신(장기)을 기증하시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분을 남기셨습다.

유족은 모친 최홍선 은퇴장사, 부인 김미자 권사, 그리고 1남입니다.



김창인 목사

나는 누구와 같으고

(눅 13:1-9)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엿다 하시니라"

나는 누구와 같으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잡아서 피를 흘려 자기가 드리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전했습시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3절). 그리고 계속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깔려서 죽었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재앙을 만난 걸로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라며 끔찍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4-5절). 그리고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이제 땅만 비리니 내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 또 대로 दूसरी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엿다 하시니라"(6-9절).

오늘 말씀에서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범한 죄를 벌을 통해서 법적으로 사형징역을 받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지어 놓은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명과 같이 자전의 재앙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내가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요'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꿈에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1. 나 행한 것 죄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장학생을 많이 키웠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대가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큰 돌 안에서 골리 열여섯 개 돌에다가도 가라앉고 조그마한 돌이 물에 떨어져도 가라앉는 것이 자연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큰 죄를 범했거나 작은 죄를 범했거나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범한 죄는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눈여겨볼 뿐 아니라 죄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잘못한 것까지 죄인 것처럼 꾸며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실 때는 죄값은 다 사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살 길을 열어 두신 사랑의 하나님

(1) 회개만이 살 길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원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이 죄인들의 죄 대신에

제가 죽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시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한 죄를 알지 않는대 남이 알면 망신스럽습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로 숨겨놓고 말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죄가 가만히 숨어 있습니까? 안 숨어 있습니다. 결국 드러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라도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겁이 나서 저 주까지 갔으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하여 기록과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이보다 더 크게 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생 동안 살인 강도지켰던 죄인 2명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렸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자, 다른 한 명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요 이제 당연하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크고 작은 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믿고 회개한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2) 핑계는 절대 금물

사람들은 잘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컸습시다. 또 겸손하고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고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 될 때에 욕심이 생기면 불쌍한 지경으로 떨어질 처지가 됩니다. 한번은 하나님께서 사두매를 통하여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골리 열여섯 개 돌이 주어라 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라"고 하시고 소리와 적되는 이의와 유양과 악대와 나귀를 쫓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쟁을 했는데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과 백성들은 가지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하고 기름처럼 살인 양과 소, 이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취하였습니다. 그후 사두매를 만난 자리에서 사울 왕은 사두매에게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사두매가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는 다 죽였습니다"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세우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라며 모든 잘못을 백성들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삼상 15장). 오늘날에도 이 땅 위에는 자기가 잘못을 범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회개 못한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할 때에 자신뿐 아니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삼상 31장). 지도자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겨두면 제도를 받는 백성들이 불쌍해집니다. 끔찍한 말입니다.

죄와 이러한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딱 한 마디 하면 끝나는대 거짓말하면 그 죄가 10배나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면 100배나 커지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말하는 죄가 더 무서운 핑계하는 죄가 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열 번 핑계하고 남에게 뒤집어씌웠던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저 큰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집시다.

3.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할 일

신교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나무를 통해 배울시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8절). 선교사들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두루 판다"는 말은 땅을 훑어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땅 훑으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마음 속의 죄를 뿔고 나서 "하나님, 지금 선교를 나갔습시다. 불쌍히 주시옵소서"라며 두루두루 파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에 일할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령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두루 파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육신을 뽑아 던지면서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또 "거름을 준다"는 것은 재산을 쓴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재산을 다 바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루 파고 거름을 준 자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4. 결 론

30배, 60배, 100배 회개한 베드로처럼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회개한 강도처럼 천국에서 면류관 받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죄를 숨겨놓고 핑계하고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벌받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자기만 벌받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백성까지 죽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것을 바로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잘못했으면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됩니다.

신교주일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실 때에 '내 잘못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분들 되게 하신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주노라"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주시는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성록 목사

잃어버렸던 자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때와 이때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엡 2:1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 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우리는 없었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때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바 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대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의 삶이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엡 2:3).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다던 이질들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아직도 그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멀리서 그리스도를 할 뿐이며 그리스도 안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을 뜻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소망, 즉 구원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실함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개시는 내가 거두거나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소망이 있고 없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골 1:5).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진실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6, 17).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세

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이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히 6: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흔들리고 견고하여 회망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핏기색의 만사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히 6:19, 20).

복음없는 소망없이

잃어버린 자들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 세상의 복을 계산하는 자들입니다. “...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신 하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실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운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 그 때와 이 때, 잃어버린 자였을 때와 찾아진 자 될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버려졌던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도”(엡 2:16).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 놀라운 자비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순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사망 속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 때와 이 때가 달라야

성도들은 그 때와 이 때가 달라야 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였으니 이는 이 둘도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 2:15). 그리스도의 소위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는 자들은 영생을 가진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좁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고 하셨기에 그 길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도 하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 소망은 세상의 것,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며, 그 때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입니다. 이 짧은 삶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던 불쌍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중생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7).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들어오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흠으로 감추었던 것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골 1:26).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니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세

도 없는 자이더니”(엡 2:12). 이 세상에서 소망, 곧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 주시는데 아들들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없으니 이들에게는 세상에 박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시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 6:68). 그 때에 속한 잃어버린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정말로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몽골 겨울단기선교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민 병 윤 (선교 전도사)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몽골겨울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로 고생했지만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대원도 감기에 걸리지 않은 것을 무척 감사드립니다.

의료선교를 통해 800여명이 진료를 받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하30도의 추위였지만 노방전도를 통해 700여명의 어른과 1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큰 성과였고 추운 겨울에 펼친 선교사역이 더 빛나는 결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몽골은 현재 종교개혁을 개척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올해 있을 선거를 의식하여 정부에서는 민족주의 및 타교의 중흥을 외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외적 사세가 종교법입니다. 다분히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는 이 법안의 골자는 청소년들이 어떤 종교활동에 참여하려면 부모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몽골교회의 청소년비율이 그 어떤 종교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기독교에는 큰 타격

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금지하게 됩니다. 한참 성장을 거듭하는 기독교에는 이 법안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므로 각종 대사와 한국측 선교사들이 연대하여 반대입장을 밝히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있는 몽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으며 한 영혼에 대한 투자의 값을 감히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외신부 몽골팀에는 훨씬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몽골팀에 많은 집사님들이 새로 오시기도 하고, 교회내에서 많은 일이 너무 많아서 올해 몽골팀 교사직을 잠시 유보할까 하신던 집사님께서도 몽골팀 교사직을 더욱 힘있게 하시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 나라의 종교상황은 어려움이 커가지만 한국에 있는 외신부의 몽골인원이 날로 부흥하여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이번 단기선교에서 접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꾸준히 일꾼을 양육하며 심방하여 현인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몽골단기선교의 결심이며 앞으로 선교위원회 외신부 몽골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땀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북 (집사, 12교구)

첫날 몽골인들을 데리니 마을이 저절로 기뻐했습니다. 한방과 양방으로 나눠 진료했는데 저는 한방을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협업을해보니 대부분 고혈압이었습니다. 알약복용 음식을 많이 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으로 인하여 두통, 편두통, 후두통 환자도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런 환자들도 남자들이었고, 여자들은 요통과 허리통증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침 치료를 했고 식이요법을 가르쳤지만 야채가 없고 섬유질 식품 가격이 비싸 구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때 음식섭취를 못해서 오는 위장면과 위궤양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식이요법을 잘 가르쳐주고 한약을 제공했더니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러리 어디서 왔나고 물어서 '우리는 서울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예수를 아나고 몰랐더니 안다는 사람이 80%이었으며, 10%는 처음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김희수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후인데, 믿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환자를 많이 만났는데 그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치료를 여기서 하루 저기서 하루 하는 것은 완전히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환자가 호전되어 우리들이 떠나를 무렵 침 치료와 교회를 나갔다는 소식을 현지 사역자를 통해 전해 듣고 참 기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은 한번 믿으면 변하지 않고 술담배를 끊고 서나를 정도로 결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땀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이 좋나 지옥이 좋으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천국을 택하는 것을 보고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도에서 200km 떨어진 켈름지역에서 진료했을 때 사람들은 진지했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군수가 조심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리라는 기대를 합니다. 또 이번 선교를 통해 이기지 못 가지가라는 것보다 약속 많이 가지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때마다 찬양이 기뻐하는데 찬양을 특히 많이 불렀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방글라데시 출발보고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의 일정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4박15일이다. 교역자와 장로님을 포함하여 9명의 팀원은 전원 대학부 및 청년부에 소속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은 현지인 집에 숙소를 정했으며 주로 다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집에서 민박할 계획에 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며, 현인인 미자립 교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단기사역팀의 특이한 점은 요세프와 대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바이올린, 오보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대원들이 각자 악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작은 연주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인 교회와 다카대학 음악학교에서 한양 및 율동, 마임, 영화상연 등을 할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벵골족이 93%로 주류를 이루며 회교도가 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겨우 0.4%다. 상류층의 대부분은 회교도들이다. 교통, 치안 및 위생시설 등 사회적인 여건이 매우 열악하며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이다.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며 이번 단기 사역을 통하여 어둠은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도제목을 첫째, 장기 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단기 사역팀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둘째, 찬양사역으로 그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셋째,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다수인 사관현직인 교회사역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김석진 기자)

이미용전도회 "머리하러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으면 맞이해주는 이미용전도회에 들어서니, 마음까지 끌려가게 다들 어눌한 인상이었다. 이미용전도회는 지난날 10월 복지관 2층에 있는 목욕탕 한곳에 미용시설을 갖추고 봉사를 시작하였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에바다부 성도들과 교회 주변지역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머리도 깎아주고 간단한 카파도 헤드리고 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찾는 분이 별로 없다. 매주 화요일 봉사를 시작한 주요 동기가 교회 근처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성도들의 적극적인 입소문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봉사하고 있는 대원 대부분은 주로 어둠과 거울에 놓여온 전도를 하러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 그 감동으로 봉사하는 형은 없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어둠에 놓여온 전도를 가만 맹맹에서 두세시간씩 서 있기 심상인데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리를 하고 앉았던 모습으로 교회와 또 예배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 피곤이 다 녹아!"라고 그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이런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이미용전도회에서는 교도생을 모집하여 미용 기술을 실비로 가르치고 봉사의 기회도 줄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회 문을 나섰.

(임정식 기자)

어른을 위한 신앙동화

가난한 부활절

어느덧 세월은 흘러 요섭이도 어엿한 목회자가 되었고 변두리 산동네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였습

니다. 그가 담임하는 교회의 모습은 흡사 어린시절 그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척교회, 그것도 산동네 빈민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목회는 마치 애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처럼 뿔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 속에서 자신은 돌볼 겨를조차 없는 기도의 연속이었고 자신의 살을 떼어 먹이는 그리스도의 심정과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어찌된 이럴 수가 있어요!

민식이네 딸같은 두 개나 받아 왔다는 데 우리 에는 왜 한 개도 안줘요, 왜?"

"안준계 아님니다 인영이 어머니, 민식이처럼 두 개를 챙겨버린 아이들 때문에 달같이 모자라 인영이처럼 늦게 온 아이들에게는 달같이 주어지지 못한 때문이에요. 민식이한테 인영이에게도 달같이 돌아가도록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나눠 주라고 말했는데 민식인 도무지 달같은 한 개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엔 인영이 어머니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다음번 부활절에는 달같은 더 많이 구입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 말쯤은 지난번 부활절때도 하셨었어요. 이번이 벌써 두번째인데 인영이가 맨날 원금도 안내고 교회 나온

다고 미운뜰 박힌 것 다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은 인영이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항상 하나남께서 필요한 만큼만 채워 주시잖아요. 그러니 제 불찰로 보이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함."

결국 총집사는 목사님께 따지는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이유는 주요성 목사의 큰아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달같은 빼앗아 인영이 손에 쥐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목사는 모든 교회인들을 아내와 함께 감당해야만 합니다. 유익하게 장로로 계신 권장로는 아간에 아파드 경비를 서시는 까닭에 주일 봉사는 두 주에 한번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내까지 없다면..."

하는 감사의 제목이 주목사의 입에 늘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예배 때에도 주목사가 설교를 위해 눈물어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동안 강대상 청소며 예배당 청소를 도맡아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정말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동안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영성의 하늘영광을 감당하는 그 가난한 마음, 궁핍하고 곤란한 중에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짧은 설교가 끝나고 눈물어린 찬송을 올린 뒤 축도와 함께 예배를 마친 성도들의 눈가에 눈물없이 눈물과 기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목사와 그의 아내는 하루종일 피곤했던 몸이 어느새 날아갈듯 가벼워진 것을 감사로 돌리며 의자들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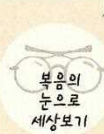
"여보, 헌금바구니에 무언가 가득 들어 있는대요."

"그럴 리가, 오늘은 헌금한 성도들이 없었는데..."

허물한 예배당 안에서 부부는 말없이 감격하고 있습

니다. 헌금바구니 속에 가득 담긴 부활절 달같은 때문

입니다. 헌금을 내지 못할 만큼 가난한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눠준 생달같은 다시 가져와 헌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속엔 분명히 인영이의 달같은 들어 있었었습니다. 나무도 가난한 부활주일입니다. 나무도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입니다. (정대선)



세상의 체제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은 벤처가 주역이 될 것이며, 대기업은 벤처와 연계하지 않고는 향후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한국의 기업조직은 서울대, 연·고대 등 학생과 지인으로 짜여져 있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지식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창의성이 불필요한 규제 속에서서는 발휘될 수 없다."

1월 31일자 조선일보 경제칼럼

또한 세상의 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최대한 적응시킬 사람들을 만드는 일에 관심과 집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병세' — 명문대출, 대기업입사, 중·고교 성실한 생활... — 21세기 '낙제' — 관료주의, 급변사회에 '외기감' — 으로" 1월 28일자 국민일보 문화면

그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 — 복음주의의 — 를 갖고 '분명하게 변화'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알지 못할 것이며 태도에 있어서 더욱 '복음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대선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신석운' 성도를 소개합니다



가톨릭에서 영세까지 받았다고 말하는 형제는 단아하고 깔끔한 모습이였다. 저금용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근 예비역'에 몸담고 있다.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항상 선행이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되어서 확신할 수

도 부인할 수도 없었으나 이제는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 얻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해연' 성도를 소개합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인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위해 교회에 등록하였다. 자네님은 세례교인이며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체험하고 있다. 새가족부에서 성경공부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외로운 객지 생활에 많은 위

로를 받는다고 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더 활발해지고 교향의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동역자도 만나 믿음의 풍성한 생활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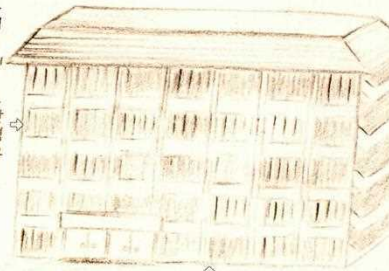
한숙정(새가족부 통신원)

교회 안내 4

총천의 새가족들을 위해 오늘은 선교관을 소개합니다

선교관은 민족종교와 세계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에 걸맞게 1층로 비에 들어서면 양면으로 증원교회 선교관행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드나들 때마다 '나도 선교사'라는 소명을 확인하면서 '보내신 선교사' 선교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지원하는 성도인식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4층에 선교회 원회실, 전도원회실, 전도원회실, 전도원회실, 전도원회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주일에 비는 시간대 도서관에서 경건서적들을 읽으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5층에 국제회의실(다목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목적 및 교역자 회의, 전도원회, 전도원회, 전도원회 등이 진행됩니다. 봉사위원회 사무실도 최근 5층으로 이사했습니다.

3층에 다목적강의실, 원로목사실, 강도원회, 기획위원회, 전사실, 출판부, 주간승원 편집실 등이 있습니다.

2층에 교향회, 상담실, 전도원회 등이 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성도들은 언제든지 2층에 상담실이나 교역자회의실을 두드리십시오.

1층에 영아부실과 교구간사실이 있습니다. 주일에 되면 제일 바쁜 곳 중 한 곳이기도. 교구 간사들이 각 교구의 소식들을 챙기고, 여러 일들을 정리하고 분주합니다.



그림 / 장선아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의 사랑

장 현 민(대학부 1학년)

만가지 은혜 주셨으나

김 국 자(권사, 1교구)

지금까지 내가 만난 주님은 정확하게 이러한 분이시다고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주님의 모습 또한 사랑이 넘치셨고 인자하고 관대한 분이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다며 넘치신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배운 사랑만큼 남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처음부터 그분은 나에게 사랑으로서 나타나셨던 것이다. 기쁜 일도 많았고 한련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던 교통부 시절에 주님을 많이 만나면서 그분의 참사랑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어 하며 절망과 슬픔에 잠겨 아파하는 이 영혼을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시어 나를 위로하시며 쓰러져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사랑으로써 보살펴 주셨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주시며 미워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믿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해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통학교 3년동안 힘들 때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 특히 신앙과 공부부 병행하여야 했던 3교수형 생활에는 공부에 더 치우치다보니 주님과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질책보다는 오히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셨다. 사랑으로써 다시 받아 주셨던 것이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사랑의 주님...짧은 글로써 말하기엔 너무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나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늘 나와 함께 계시며 평생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나의 주님, 이런 주님을 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제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요.

지난 권사 교육시간에 이홍성 목사님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눈물이 솟아 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위선적인

자의 마음이 얼마나 가소로웠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내세우는 일, 그저 주께로 주세요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신앙의 가정이 온 식구가 하나되게 하셔서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큰 자녀들이 새신자 교육 받아 세례교인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팔년만에 머니의 태의 문도 열어 주시고 귀한 후손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우리 손녀가 유아세례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이름도 '예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돌이켜 볼 때 불충하고 기도 게을리했던 죄를 용서하십시오. 겸손하여 순종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이제 2월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성령충만과 자자손손 믿음의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귀한 직분 주셨으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따뜻한 이야기-5교구

어느 시대에도 추울수록 더욱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깥의 추위를 상관이 없게 언제나 따뜻한 실내에서 겨울이기에 더욱 은밀해진 사랑을 나누며 오손도손 살아간다. 그림 장으로 간간히 흘러 나오는 웃음소리는 운기나는 행복이 실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도 한뼘쯤은 저다보기 마련이다. 세상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처럼 추울 때 갈 곳이 없어 시린 가슴을 안고 고통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두운 담벽에 웅크리고 앉았다가 따뜻한 웃음이 흘러 나오는 집안을 들 어다보며 더욱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에 속한 사람들은 창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불쌍한 사람들은 황량한 바람이 이는 가슴을 안고 인생을 원망하며 주위에 멀타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때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5교구에는 늘 창밖을 주시하며 주위에 떠는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 우리가 방치해 놓은 이웃을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집사님은 명절이 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구 내의 가난한 이웃과 질병에 시달리는 교우들을 돌보는 일을 헌신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 보살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정현희 기자)

"One step is enough"

곽 현 구(교동부)

수련회에 와서 2일동안 부흥회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시간 내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허탈한 마음으로 별을 보았 요.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이상 내가 가야 할 곳 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이구나" 하는 허탈한(?) , 강한 갈망으로 갔습니다. 조용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교만에 죽고 말것이란 것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신발을 벗어놓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그리고 16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 다. "하나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 죄악으로 날 살 리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 다. 그리고 성경에서 내 마음 을 건드렸습니다. 내 교만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에 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골로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 시고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보다, 예수의 종 내가 더 높이는 않느니라 내가 너를 자랑케 한 것이 아니요...주 님이 주신 것을 너의 것이라 자랑치 말라...너에게 줄 내 사랑이거늘 너의 영광을 위하여 말라...' 무슨 장인 지 그냥 피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다가 울을 때문에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 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내 주님을 믿는 생활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공부였습니다. 내 우상이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단지 그 공부로써 주를 멀리 할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 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이 다가갈 때 One step is enough 라는 것을, 계속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 다.

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혼란하다. 조금이라도 더 잊 으면 더 편리한 것이 몰질인데, 이웃을 위해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 은 아니다. 물질의 시대에 욕망을 포기하며 주 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다.

지체들 소식

에바다부

찬송가부르기 대회·임역원 수련회

지난주 에바다부에서 찬송가부르기 대회가 열렸다. 지금까지와 달리 작별별로 자유롭게 찬송가를 택하고 반구분 없이 반을 합하여 나올 수도 있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 사랑하심을' 주는 나를 그리스는 목자' ... 등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열심히 연습하여 수화로 아름답게 울려퍼졌다. 에바다부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항상 넘쳐나길 소망한다.

학생 및 청소년 임역원 수련회가 28-29일 춘천기도원에서 있었다. 2000년도에 에바다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에바다부가 되었으면 한다. (이미안 통신원)

사랑부

'뜻의 가족' 성극

지난 주일 2부 순서에서 대학부의 젊은 선생님들 주축으로 성극이 마련되었다. 예배 시간 목사가 말해주셨던 '뜻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다. 외상도 구하고 커다란 BOX를 여러개 준비하여 벽돌 그림을 그린 도화지를 이어 붙여서 성을 만들고 그 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재현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뜻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 보아 소금기둥으로 변한 것을 눈의 효과를 내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였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평소 배운 성경 말씀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회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사랑부의 이러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부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민혜정 통신원)

고등부는 지난 29일 봉사관

미로다출에서 '찬송가부르기대회'

를 가졌다. 24개팀을 결성, 팀별로 참가곡을 선정하여 교사와 함께 3주전부터 대회를 위해 연습...영어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악기연주자 걸출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역시 신세대들답게 팀 미디의 개성이 뚜렷. 한편 대회 시상식에서 학생들은 1, 2등 상 외에 캠프학교(인기상), 왕따생각지점수(주력상) 등이 수여될 때 머리보다 더 크게 환호했다고 한다.

물매들

'충헌공동체'

정 언 회 (웹사, 중동2부 교사)

새로운 시간을 맞았다. 혹자는 인간의 삶을 '개미 쳇바퀴 돌듯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삶은 순환이 아니라 끝없는 진전이다. 우리의 앞길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맛보지 못한 갖가지의 신비로운 삶의 양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탐험을 하듯 삶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한 걸음씩 주된 인도를 받으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간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서도 살아가 수 없기에 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다. 공동체의 묘미는 협동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나아가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럿이서 하나를 이루는 감미로운 합창과 군무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에 감정을 보내곤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없거나 공동체로부터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의 결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을 두루 잘 이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저 사람은 너무 젊어서 혹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안되고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안되고 저 사람은 여자라서 안된다는 등의 고루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새 시대의 벼루,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던 그 어떤 고정관념의 족쇄를 훌훌 던져버리고 새롭고 발전적인 견해를 수용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평등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우리는 여럿이서 하나를 이루는 충헌공동체이다.

충헌 지상교회학교
(紙上教會學校)

교무실

교구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한번쯤은 조용한 기도의 처소를 찾아 갈 필요를 찾는 일이 있을 터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갈릴리움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마음을 쏟아 놓기에 더할 수 없는 아늑하고 좋은 장소다.

그런데 갈릴리움을 공회이나 악수터의 변취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쪽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장소에서 어떤 성도들이 주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일상의 얘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꽤 여러번 보아 왔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이분들은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인 것 같았다. 인내하고 듣고 있자니 기도를 방해받는 것이 싫었고 충고를 하거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싫어서 결국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오래 천주부 기도했다고 또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그곳에서 자기집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럴수록 조심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 기만만을 생각하여 공동체를 망각하는 무례를 행치 않아야

성도실

▲1교구 안진실 성도(연주구역) 골다공증으로 앉고 서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교구 유인녀 전사(목양 1구역)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 앞길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가 부서져서 수술을 하겠다는 데 갈라져 추라고 합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은정 성도(연주구) 신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끝내고 집에서 치료 중입니다. 나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15교구

의 지난 주일 만나홀 식

당부 때에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는데, 식당 주방에 남성들이 출현! 국수를 먹고 난 성도들의 빈 그릇들을 받아 열심히 씻겨지고 있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다소 크긴 했으나 설거지 속도는 대단히 빠른 듯 '설거지만큼은 체계적으로 강한 남성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성도들의 수고도 덜어주게 되어 기꺼운 마음으로 일한다'며 단정을 고쳐 쓰고 앞치마끈을 동이는 모습들이 정겨웠다.

초등부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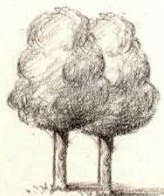
난 23일 학생심방을 앞두고 '심방과 심방' 교사특강이 있었다. 심방은 곧 심정으로 서로 무엇인가 가르쳐야 한다는 교정관에게서 말되,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어 그들의 신앙,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특강 내용을 적용, 한 교사는 심방중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특성들을 -심술긋은 장난, 만만찮은 고집마저도- 하나하나에서 다듬어 보실 가능성으로 보게 되어 감사하고

은동장

대학부

의 소그룹 '동백개' 는

10년이상 서울역 부근 보육원 '혜심원'의 아이들과 매주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20여명의 회원들은 겨울방학 한 달 동안 주 4회의 백백한 일정을 잡아 보육원의 유치부·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글과 학과공부를 지도했다. 상명수의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노는 데 열의를 보여 교사(들)에게 화환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교사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가 대부분인 이유에 밝은 시 간이기에 친구처럼 함께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사랑을 나타내고자 아이들의 '산만함'과 공부에 대한 '무관심'에 적절한 안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영어학점교과		
구분	시간	장소
영어필수	I 오전7:00	본당
	II 오전9:00	본당
	III 오전11:00 (수배,목회자(목회자)제)	본당
	IV 오후1:00(목회자(목회자)제)	본당
	V 오후3:00 (목회자(목회자)제)	본당
English Series	9:00 a.m.	목회자(목회자)제(Core Hall)
선정필수	오후 5:00	본당
수업필수	12:20-1:10 오후 7:00	본당
금요회	오후 7:00	본당